



농림부 신임 차관보에 김달중 정책홍보관리실장



◀ 김달중 차관

농림부는 지난 5일 공석중인 차관보에 김달중 현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임명하였다.

신임 김달중 차관보는 전북 정읍출신으로 지난 1978년 행시 21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국립종자관리소장, 축산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맛있는 유혹 행복한 체험'

지난 7일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농림부



주최와 농협중앙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2006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가 열렸다. 각 단체장 및 K-1 최흥만 선수가 조리한 '2006인분 팔도팔미 한우불고기' 배식이 있었다. 120여개의 축산 브랜드 업체가 참여하였고, 양계분야는 (주)하림, 마니커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부스에서는 브랜드 설명과 시식 행사를 통해 홍보를 벌였다. (본문 119페이지 참고)

가금수급안정위원회 구구데이 행사 실시



지난 8일 서울 명동 하이해리엇 광장에서는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주최로 본회 최준구 회장 등 관련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구데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미리 보는 추석맛이 팔도 닭·계란요리 축제'라는 주제로 닭과 계란에 관련된 30여 가지의 요리를 준비하여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 잡았다. 닭을 주재료로 사용

하여 만든 요리시식회 및 구운계란 등 무료 증정을 통해 양계산물의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9월 9일에 SBS TV '생방송 토요일집 모닝와이드'와 12일 KBS 2TV '감성매거진 행복한 오후'에 구구데이 소개에 대해 방영되기도 했다. (본문 80페이지 참고)

(주)체리부로 신축공장 준공식



(주)체리부로(대표이사 김인식)는 지난 7일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본사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사 15주년 신공장 준공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1991년 진천 공장을 시작으로 전남 장성, 제주에 공장을 두어 육계 계열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한바 이번 진천 제 2공장을 설립하였다.

진천 제 2공장은 닭고기 내부 피멍, 뼈의 이상을 개별적으로 판독하는 품질 등급 자동분류 시스템(QGS)을 도입하여 기존 시설의 비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내년부터 실시될 포장의무화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최장의 에어 칠링시스템(Air Chilling System) 도입으로 인해 제품의 온도를 4℃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생산자들에 신선한 닭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문 116페이지 참고)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 출하지원시스템 구축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출하지원시스템 등 신규 콘텐츠를 개설하였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www.kor meat.co.kr)/등급정보/출하지원시스템 클릭 후 생체중과 산지 거래가격(생피가격/kg)을 입력하면 된다.

등급계란 정보서비스는 등급판정 받은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가 난각에 표시되어 있는 롯트번호를 통하여 계란의 생산정보는 물론이고 등급, 유통기한 등 다양한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작업장 정보는 주소, 전화번호, 약도 등 세부 내용까지 Pop-Up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업장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농장에서의 수송거리가 닭고기 품질좌우

닭고기 품질은 사양기술, 수송 및 도계조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중에서도 농장에서 도계장까지의 수송은 차량의 좁은 케이지 내에서 장시간 소요되어 육계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상육(PSE)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닭형태에 있어 육질 1+등급 출현율은 근거리수송(40km)에서 61.3%, 중거리 수송(70~80km) 56.3%, 원거리 수송(140~150km)이 43.3%로 근거리수송이 원거리수송에 비하여 18% 정도 1+등급 출현율이 증가한 것을 축산연구소는 발표하였다. 부분육에 있어서 가슴육의

PSE육의 출현율은 근거리수송에서 7%, 중거리 수송 13%, 원거리수송이 18%로 근거리수송에 비해 11%정도 더 많은 PSE 출현율을 보였다.

축산연구소 관계관은 “근거리수송이 원거리수송에 비하여 1+등급이 18%정도 많이 출현하였으며, 가금육의 PSE육 출현율도 수송거리가 짧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밝혀냄에 따라, 금후 이 분야에 대한 활용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의약연구회 추계 심포지움 개최

최근 언론에서 가축유래 항생제내성균이 사람에게 전파되어 항생제 치료를 어렵게 하는 등 위해성을 보도함에 따라 동물용항생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9월 15일 14시에 안양시 소재 검역원 대강당에서 동물의약연구회 주최로 “동물용항생제내성과 안전사용관리”라는 주제로 추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항생제 내성과 국·내외 내성 발생동향(서울대 김소현 박사), 동물 및 축산물 유래 항생제 내성(검역원 정석찬 과장),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Dr. Shryock, Elanco, 미국) 및 동물용 항생제의 안전사용관리 방안(검역원 손성완 과장) 등 4개 연제가 발표되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을 계기로 동물용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의 올바른 이해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과학적인 평가를 근거로 한 항생제내성 절감화 및 안전사용관리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재정경제부

면세유 부정사용하면 불이익 내년부터 적발시 ‘1년간 공급중단’

그동안 해당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간 면세유 공급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관련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류값 급등으로 면세유(269만㎏, 면세혜택 총 1조1,400억) 불법유통과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부터 부정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2년이상 3회이상 적발 또는 5년 이내 부정사용 추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년간 면세유를 중단하던 현행 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는 단 1회 적발되어도 1년간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번에 재경부가 제시한 부정유통 유형은 면세유구입권 양도 또는 매매, 폐농기계 면세유 신청, 가정용이나 승용차 사용, 농수협이 면세유 공급관리대장 소홀 등이 부정유통에 해당돼 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AI 대책협의회

신종보도, 무증강 감염자 추가확인 발표

정부 및 양계생산자들로 구성된 AI 대책협의회가 지난 9월 11일 질병관리본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 2월 24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지난 몇 개월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2003년 당시 살처분 작업에 투입되었던 1,900명의 혈청검사를 실시



한 결과 5명이 추가로 양성반응이 나타났지만, 모두 무증상 감염자로 판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본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양계산업의 피해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보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조사결과의 공식적인 발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양계산물 피해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데 회의 참석자 모두가 동의하였으며, 9월 14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될 2~3건의 보도자료와 함께 조사결과를 발표키로 하였다. 이날 보도될 자료는 13일 중으로 양계협회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의 사전 검토 후 배포하기로 하여 본 보도의 파장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향후 A1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민감한 사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축산연구소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긴꼬리닭 발굴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재래 긴꼬리닭을 발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기 3세기 삼국지 위지 동이전 등의 고문헌



에는 한반도에 꼬리길이가 1m에 달하는 긴꼬리닭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전통무용의 복장에서도 긴꼬리닭을 형상화한 복장으로 춤을 추는 등 한반도에 긴 꼬리를 가진 닭이 존재하였다는 증거는 많이 있으나 실물은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장 상병돈)은 지난해 연말 경기도 고양시 이희훈씨가 지난 20여년간 긴꼬리닭을 복원하여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지조사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귀중한 유전자원을 발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유전자 검사를 담당했던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의 연성흠 박사는 발굴된 긴꼬리닭의 모계계통이 매우 확실하며 적어도 2개 이상의 계통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긴꼬리닭은 털갈이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꼬리깃이 자라서 긴꼬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긴꼬리닭을 사육해온 이희훈씨 농장에서는 매년 꼬리털갈이를 하면서도 꼬리가 1m정도 자라고 있다.

일본에서는 긴꼬리닭(長尾鶏, Onagatori)이 고치현을 중심으로 천연기념물로 사육하고 있으나 그 기원에 관하여는 한반도 유래설, 아계교잡설 등으로 학술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재래 긴꼬리닭이 발견됨으

로써 이와 같은 학문적 가설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긴꼬리닭의 유전 및 생리특성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조절계사를 신축하여 긴꼬리닭을 보존, 사육하면서 꼬리털의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입법 예고

살처분→‘강제폐기’로 용어변경

축산농가가 방역규정을 위반해 전염병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또 가축의 ‘살처분’ 용어도 ‘강제폐기’로 변경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농가 등에서 방역규정을 위반 또는 회피해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농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의 ‘살처분’ 용어는 국민들이 갖는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폐기’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동안 축산업계에서 살처분이란 단어를 혐오감이 적은 용어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당시 양계협회에서는 안전처분과 의무도태 등을 안으로 제시

한 바 있다. 더불어 돼지콜레라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과 이름이 비슷해 ‘돼지열병’으로, 부르세라는 ‘브루셀라’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편 제1종 가축전염병처럼 제2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판정된 지역에서도 일정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해 교통차단이나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국가만 지급해온 가축의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토록 개정했다.

제12회 아태 축산학회 학술대회 아시아권 최대규모 21년만에 한국 찾아



아시아권 최대규모인 제12회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AAAP Congress 2006, Korea)가 지난 2006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백스코(BEXCO)에서 개최되었다.

3회('85년) 개최국이었던 한국으로서는 21년 만에 돌아온 기회로 이번 학술대회는 '80년대 초반 설립, 모두 20여개국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Asia-Australasian Association of Animal Production Societies)

의 격년제 행사로 11개 상임위원국이 돌아가며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대회 주제 '웰빙'이 부상하고 있는 국내 추세를 반영한 '인류의 복지를 위한 축산업의 과제'로 개최되었으며, 아울러 바이오테크와 환경 분야도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졌다.

특히 외형 중심의 화려한 행사는 철저히 지양하고, 간소하면서도 대회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사로 치루어졌으며, 부대 행사로 유관학회와 연계한 몇개의 심포지엄 및 각종 축산관련 제품에 대한 전시장도 함께 운영되었다.

AAAP 학술대회는 아시아에서도 일본 대만과 함께 축산분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한국축산업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국대학교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 개소기념 학술대회



건국대학교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소장 육완방)는 지난 8일 건국대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 개소식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24번째로 인증을 받게된 건국대학교는 국내 축산과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건강의 새

로운 기수로 도약할 뜻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강창원 교수가 '국내 유기축산 현황과 과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순환 사무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품질관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가 있었다.

한국양계농협 전국 순회 조합장 간담회개최



한국양계조합 오정길 조합장은 당선 이후 처음으로 지역별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합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오정길 조합장은 지난 19일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21일 호남지역, 22일 영남지역을 순회하며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정길 조합장은 "대외적으로는 한·미FTA 협상, 대형유통할인점들의 입지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과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위치에 처해 있는 등 많은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수도권 통합유통센터 완공, 최고 품질의 사료공급, 전임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